광주·전남 수입차 시장 3년만에 2배 이상 급신장

작년 각각 3007대·2070대 신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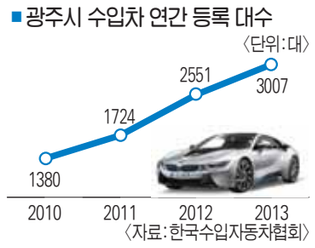
60% 이상이 BMW·벤츠 등 독일차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15만대를 넘어서며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한 가운데 광주지역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3000대를 넘어섰다. 광주·전남지역의 수입차 신규등록은 3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나 수입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입차 연간 누적 등록대수는 15만6497대로, 2012년 13만858대와 비교해 19.6%가 증가했다. 광주는 지난해 개인 2657대, 법인 350대가 등록돼 연간 등록대수는 3007대로 나타났다. 2012년 2551대(개인 2251·법인 300)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수입차 시장이 500대 가량 더 성장했으며 처음으로 연 3000대를 넘겼다.

광주의 연간 수입차 등록대수는 2010년 1380대(개인 1148·법인 232), 2011년 1724대(개인 1470·법인 254)로, 매년 가파르게 수치가 올라갔으며 지난해 등록대수는 3년 전인 2010년보다 217.9%나 증가했다.

■광주시 수입차 연간 등록 대수



전남의 수입차 등록대수는 2010년 867대(개인 701·법인 166)에 불과했으나 2011년 1071대(개인 876·법인 195)로 1000대를 넘긴 뒤, 2012년 1609대(개인 1381·법인 228), 지난해 2070대(개인 1653·법인 417)로 2년 만에 2000대 벽을 넘어섰다. 전남 역시 2010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등록대수가 238.7%나 늘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수입차 시장에서의 브랜드 선호도도 최근 3년 동안 독일차 위주로 기울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BMW가 전체 수입차 등록대수의 19.12%를 차지, 1위를 기록했으며 폴크스바겐이 18.82%로 2위, 아우디와 메르세데스-벤츠가 각각 15.80%, 11.3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토요타가 상위 브랜드와 큰 격차를 보이며 4.92%로 5위에 올랐다. 전남에서도 BMW 26.09%에 이어 폴크스바겐 16.91%, 메르세데스-벤츠 13.67%, 아우디 11.98% 등 '독일 4사'가 '빅4'를 형성했다.

두 지역 모두 독일차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65.05%, 68.65%에 달해 사실상 독일차가 시장을 평정했다. 반면, 2010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1.09%, 9.11%로 등록대수 4, 5위를 기록했던 일본차 혼다는 지난해 등록대수가 수입차 시장의 3.96%, 3.24%에 그쳐 독일차와 희비가 극명했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무는 "지난해 수입차의 신규등록 증가는 각 브랜드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주효했다"며 "디젤모델의 인기와 젊은 소비층이 견인차가 됐다"고 설명했다./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내수침체 위기 해외시장서 돌파구 찾자

코트라 '세계시장 진출전략 광주 설명회' 대성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해외시장의 진출전략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출유관기관, 광주·전남북 수출기업인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업들로 성황을 이뤘다.

신환섭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 추세에 있지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KOTRA는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회복(Transition)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Tension)에 대한 우려'가 교차할 것으로 전망한 뒤 해외 권역별로 유망 전략을 발표했다.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은 성장보다는 개혁을 통한 경제 내실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온라인유통과 지식서비스산업, 스마트SOC산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진단했으며 회복국면에 진입한 미국은 경기부양 수혜업종과 IT시장, 부품소재산업, 맞춤형 제품이 지역 중소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경우 엔화약세와 소비세 인상에 따른 GDP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자재 및 IT업종의 진출은 유망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576만명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K9 2014' 출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플래그십 세단 'K9 2014' 출시 행사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9 2014는 내외관 디자인에 고급스러움을 더해 중후함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종 사양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연합뉴스

작년 문닫은 건설업체 612개사

건설경기 침체 해마다 늘어

문닫는 건설업체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설업체 수는 전년보다 1.0% 감소한(612개사 감소) 5만926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발급이 이뤄지는 등록제로 바뀐 이후 건설업체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당시 3만5855개사에서 2010년 6만588개사까지 늘었으나 주택·부동산 경기 퇴행과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물량감소 등으로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종합건설업체는 지난 2005년 1만3202개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0년 1만1956개사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만921개사까지 감소했다. 8년 사이 17.3%(2281개사)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 설비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소규모공사 업체들은 취득·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구조조정(종합·전문건설업체)으로 밀려난 건설업자들이 건설업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신규로 진입, 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부도건설업체 수는 2012년(210개사)보다 25.7% 감소한 156개사를 기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FTA 대응 원산지 증명 가이드 북 발간

광주본부세관, 지역 수출입기업에 무료 배포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해 기업 실무자용 원산지 증명서 가이드 북, 'FTA 필수전략! 원산지증명서의 모든 것'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무자용 가이드북 발간은 광주본부세관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실무자들이 좀 더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광주상의 등과 공동으로 발간키로 해 이뤄졌다.

가이드북에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 작성방법 및 각 협정별 서식 등을 실제 담당자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 순서대로 알기 쉽게 수록했다. 또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PASS' 사용절차 등 실무 활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도 수록돼 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 북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및 광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gwangju)에도 게재 된다. /최재호기자 lion@

직장인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1.7% 인상

평균 1570원 더 내

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로 작년보다 1.7%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해 6월 18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런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 9만2570원보다 1570원이 늘었다.

올해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2490원으로 지난해 8만1130원에서 1360원이 증가했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작년 1.6%에 이어 연속 1%대에 그친 것이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올해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946.11 (-12.85)	▲ 511.60 (+1.82)	▲ 2.90% (+0.04)	▼ 1062.90원 (-2.00)

금호타이어 '도쿄 오토살롱' 참가

자동차 부품·튜닝 박람회

금호타이어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 인근 치바현 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리는 '2014 도쿄오토살롱'에 참가한다.

금호타이어는 전시장에서 '친환경(Eco)과 프리미엄 스포츠(Premium Sports)' 개념을 적용한 타이어 에코윙 S, 에코윙ES01 등과 초고성능 타이어인 엑스타 PS91, 포뮬러 기술력을 적용한 엑스타 V70A 등을 선보인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도쿄오토살롱은 아시아 최대 자동차 부품 및 튜닝 박람회로, 완성차와 튜닝카는 물론 각종 차량 부품과 튜닝 용품이 전시된다.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 및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등 총 11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금호타이어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참가해오고 있다.

이호우 일본법인장은"자동차 선진국의 자동차 역사는 튜닝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튜닝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는 새해 첫 대규모 행사인 도쿄 오토살롱 참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